

2002년 3월 | 22일 | 금요일

단기 4335년 음력 2월 9일

www.hankook1.com

# 한국일보

대표전화 02-724-2114 독자서비스 080-023-6969

The Hankook Ilbo



흙바람 부는 황색 서울

최악의 황사가 전국에 몰아친 21일 낮 서울 광고 일대 도심이 온통 노랑고 뿌연 먼지로 뒤덮여 건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대근기자

## 최악 황사... 초등교 오늘 휴업

### 서울·경기·대전·충북 유치원도 함께

경남·충남은 학교장 재량

21일 최악의 황사(黃砂)가 전국에 몰아쳐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평소의 30배까지 올라가고 22일 서울·경기 등 4개 지역 유치원

·초등학교에 휴업령이 내려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황사는 주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대전·충북도교육청은 이날 황사로 인한 어린이들의 건강 악화를 우려, 시·도내 모든 공·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 22일 하룻동안 휴업토록 했다. 황사로 인한 휴업은 처음 있는 일이다. 충남·경남도교육청도 이날 각급 학교장 재량에 따라 휴업하도록 했다.

기상청은 "중국 북부 내륙지방에서 북서풍을 타고 온 황사가 21일 새벽부터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중국 베이징 북부의 내몽골 고원에 여전히 거대한 먼지 바람이 형성돼 있어 짙은 황사가 계속 우려된다"고 예보했다.

이날 황사로 시정거리가 서울 1km

이하를 기록하는 등 ▲광주 0.6km ▲진주 0.8km ▲제주 0.9km 등으로 떨어져 차량들이 거북 운행을 하고 출퇴근길 교통체증을 빚었다. 또 부산 여수 울산 등 지방공항과 김포를 오가는 80여편의 국내선 항공편이 결항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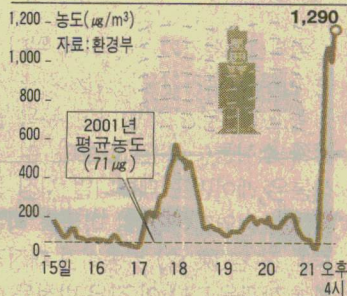
★관련기사 25·31면

특히 이날 서울지역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오후 4시께 1,290 $\mu\text{g}/\text{m}^3$ 에 달해 평소의 18~19배를 기록했고, 한남동 등에서는 한때 30배인 2,046 $\mu\text{g}/\text{m}^3$ 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황사에는 중금속이 함유돼 있어 호흡기질환과 눈병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며 "노약자와 천식 등 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김동국기자 dkkim@hk.co.kr

■서울지역 미세먼지 오염도



#### '휴업' 조치

휴교가 아닌 휴업으로 결정한 것은 맞벌이 부부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휴업의 경우 수업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교사들은 정상 출근하므로 맞벌이 부부 등의 가정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도 된다.